

2014.08.16 (Sat)

미주 한인들을 위한 종합경제지

뉴스 한국뉴스 오피니언 모닝헤럴드 기획 비즈니스탐방 게시판 루디헤럴드 K HERALD

홈 > 뉴스 > 월드 > 기사보기

월드

토론토 YWCA '훌륭한 젊은 여성상'에 전수미 씨

기사입력 2014-04-13 00:19

+



캐나다 한인 2세 전수미(25) 씨가 토론토 YWCA가 시상하는 '2014 훌륭한 젊은 여성상'을 받는다.

토론토 YWCA는 전 씨가 온타리오주 제인·핀치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뽑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 달 22일 YWCA에서 열리며 3천 달러의 상금도 받는다.

1980년 이민한 이윤영 씨의 외동딸인 그는 밴쿠버에서 태어나 토론토에서 성장했다. 고교 시절 빈곤과 범죄율이 높은 지역인 제인·핀치 지역에 이사하고부터 지금까지 지역방송 사이트인 '제인-핀치닷컴'(jane-finch.com)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라이어슨대에서 방송학을 전공한 뒤 지난 2011년 직접 제작한 1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밥 아저씨와 베트남계 아이들'로 전국소수민족미디어협회(CEMA) 인터넷 부문 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초 토론토에 정착한 베트남의 '보트피플'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덕분에 베트남계 커뮤니티로부터 '영글 밥'이라는 별칭을 얻은 로버트 사전트 씨의 이야기를 담았다.

고국을 찾아 1년간 거주해 한국어에도 능통한 그는 제인·핀치 지역의 성공 전형으로 꼽히는 드와이트 드러먼드 CBC 앵커도 인터뷰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소수민족연평의회(NEPMCC)로부터 지역사회·문화·예술 공헌상도 받았다.

현재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사회운동가,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최신인기기사

- 한국의 금산분리법 개정, 미 금융권..
- 한인사회·한국기업, '기부' 놓고 난..
- 주미대사관 장학생 모집
- 고대 남가주 교우회 골수기증 등록 캠페..
- 민족학교 칼 메디 코넥트 설명회

PDF- i헤럴드보기



이벤트 공지사항

- 유이건 입양 캠페인
- 동안-몸짱 선발대회
- 국가대표 밴드 '부활' 8월 17일 O..

비전공자 1년 맞춤 코스
CPA 시험 합격률 92% 신화!
CAS Academy
 CPA Review Class

설문조사

새해를 맞이해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 금연 및 금주(절주)
- 운동
- 다이어트
- 재충전(공부,독서 등)
- 가족과 더 많은 시간 갖기
- 작심삼일일테니 안한다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해주세요!

이름 의견 작성일

등록된 독자 의견이 없습니다.